

김제시립도서관, 최고 권위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김제시립도서관이 지난 22일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도서관상은 지난 1969년 제정돼 도서관 사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해 공로를 치하하는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올해는 전국 약 1400개 도서관 중 김제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단체 15기관이 수상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스마트도서관(U-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실감형 체험관 조성 등 미래지향형 도서관 인프라 구축, △시립도서관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도서관 리



사진 제공=김제시

모델링, △야간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장애인 및 환우) 등 다채로운 도서관 운영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최창용 기자

전라매일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김제시립도서관, 최고 권위의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전북 유일 수상 영예...도서관 사업 발전 공로 인정받아



김제시립도서관이 지난 22일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

한국도서관상은 지난 1969년 제정돼 도서관 사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해 공로를 치하하는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올해는 전국 약 1,400

개 도서관 중 김제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단체 15기관이 수상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도서관(U-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실감형 체험관 조성 등 미래 지향형 도서관 인프라 구축, ▲시립도서관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도서관 리모델링, ▲야간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장애인 및 환우)등 다채로운 도서관 운영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 김제시립도서관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이번 한국도서관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지역 사회 분위기와 열린 문화 공간 조성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박수현 기자



김제시립도서관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을 수상했다. /사진=김제시립도서관

“책 읽는 분위기 · 공간 조성에 앞장”

김제시립도서관,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김제시립도서관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을 수상했다.

23일 김제시에 따르면 한국도서관상은 지난 1969년 제정돼 도서관 사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해 공로를 치하하는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상이다.

올해는 전국 약 1,400개 도서관 중 김제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단체 15기관이 수상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도서관(U-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실감형 체험관 조성 등 미

래 지향형 도서관 인프라 구축, △시립도서관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도서관 리모델링, △야간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장애인 및 환우) 등 다채로운 도서관 운영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연숙 관장은 “김제시립도서관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이번 한국도서관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지역 사회 분위기와 열린 문화공간 조성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김제시립도서관이 지난 22일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제시립도서관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전북서 유일하게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 지닌 상 받아

김제시립도서관이 지난 22일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도서관상은 지난 1969년 제정돼 도서관 사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해 공로를 치하하는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올해는 전국 약 1400개 도서관 중 김제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단체 15기관이 수상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도서관(U-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실감형 체험관 조성 등 미래 지향형 도서관 인프라 구축, △시립도서관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

성사업 등 도서관 리모델링, △야간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장애인 및 환우) 등 다채로운 도서관 운영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시장은 "우리 김제시립도서관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이번 한국도서관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지역 사회 분위기와 열린 문화 공간 조성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립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 (540-4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도내 유일 영예... 도서관
자동화시스템도입등 인정

김제시립도서관이 지난 22일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도서관상은 지난 1969년 제정돼 도서관 사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해 공로를 치하하는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올해는 전국 약 1400개 도서관 중 김제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단체 15기관이 수상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도서관(U-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실감형 체험관 조성 등 미



래 지향형 도서관 인프라 구축, △시립도서관 꿈빛채움 문화 공간 조성사업 등 도서관 리모델링, △야간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장애인 및 환우) 등 다채로운 도서관 운영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류우현기자

김제시립도서관,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김제시립도서관이 지난 22일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도서관상은 지난 1969년 제정돼 도서관 사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해 공로를 치하하는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올해는 전국 약 1400개 도서관 중 김제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단체 15기관이 수상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도서관(U-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실감형 체험관 조성 등 미래 지향형 도서관 인프라 구축, ▲시립도서관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

성사업 등 도서관 리모델링, ▲야간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장애인 및 환우) 등 다채로운 도서관 운영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 김제시립도서관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이번 한국도서관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지역 사회 분위기와 열린 문화 공간 조성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립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 (540-4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민경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김제시립도서관이 22일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도서관상은 지난 1969년 제정돼 도서관 사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해 공로를 치하하는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

를 지닌 상으로 올해는 전국 약 1,400개 도서관 중 김제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단체 15기관이 수상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도서관(U-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실감형 체험관 조성 등 미래 지향형 도서관 인프라 구축 △시립도서관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도서관 리모델링 △야간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장애인 및 환우) 등 다채로운 도서관 운영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한국도서관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지역 사회 분위기와 열린 문화 공간 조성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국 기자

전북제일신문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김제시립도서관, 사업 추진 빛나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김제시립도서관이 지난 22일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도서관상은 1969년 제정돼 도서관 사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해 공로를 치하하는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올해는 전국 약 1,400개 도서관 중 김제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단체 15기관이 수상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도서관(U-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실감형 체험관 조성 등 미래 지향형 도서관 인프라 구축, 시립도서관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도서관 리모델링, 야간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장애인 및 환우) 등 다채로운 도서관 운영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립도서관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이번 한국도서관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지역 사회 분위기와 열린 문화 공간 조성에 더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립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540-4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안재용 기자

북신문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김제시립도서관,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김제시립도서관은 22일, 전북 유일 한국도서관협회로부터 한국도서관상 단체상을 수상했다.

한국도서관상은 지난 1969년 제정돼 도서관 사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하는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올해는 전국 약 1,400개 도서관 중 김제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단체 15기관이 수상했다. /김제=백용규 기자